

‘빨라진 설날 준비’...유통가, 선물세트 사전예약 돌입

고물가 지속...예약판매 비중 높아져 롯데마트, 과일 등 800여 품목 선배 홈플러스, 구매 금액별 상품권 혜택 농협, 농축수산물 등 최대 50% 할인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시대 장비구니 부담을 덜어줄 가성비 선물세트부터 고급 선물세트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홈플러스 제공**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설 선물세트 매출 중 사전예약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의 지난해 설 사전예약 판매 비중은 약 55%였으며, 올 추석은 60%를 넘어섰다. 이에 대형마트는 가성비 선물세트부터 고급 선물세트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먼저 롯데마트는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 약 800여개 품목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는 핸드캐리형 상품과 함께 가족 먹거리 상품의 선호도가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충주사과(3kg 내외/국산)’와 ‘나주배(3kg 내외/국산)’로 각 2만9000원대, 3만9000원대에 판매하며 귀경길에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핸드캐리형 패키지로 제작했다. 국산 해금 골드키위와 참다래 키위가 함께 들어 있는 ‘키위 혼합(2kg 내외)’와 ‘상주 귓감(福)(1kg 내외/국산)’

도 2만원대 판매하는 실속형 핸드캐리 선물세트다.

축산 선물세트도 특색 있는 상품들로 구성했다. 실속형 선물세트는 ‘한우 정육 세트 2호(1등급 한우 국거리, 불고기 각 500g*2/냉장)’와 ‘한우 실속 정육세트(1등급 한우 국거리, 불고기, 산적 각 600g/냉동)’를 각 오픈포인트 회원가 9만9000원대에 판매하며 10개 구매 시 1개 추가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한우 최고등급인 1++(9)등급으로 구성된 ‘마블나인’ 선물세트도 총 10여개 품목을 준비했다.

주류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디아지오의

특별한 싱글몰트 위스키 8종으로 구성된 한정판 컬렉션 ‘스페셜 릴리즈 2024’를 기획, 대표 상품으로 ‘라가볼린 12년 2024 스페셜릴리즈’는 22만800원에 제공한다. ‘글렌리벳 15년’, ‘조니워커 블루 밴디 에디션’ 등 유명 브랜드의 인기 위스키도 할인 판매한다.

사전예약 기간 행사 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120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상품권 수령 대신 해당 금액만큼 즉시 할인도 가능하며 선물세트 구매 시기가 빠를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도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5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전개한

다. 먼저 정육 선물세트를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로 마련했다. 행사 카드 결제 가격 기준 대표 상품으로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갈비 냉장 세트 17만5000원대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 13만6000원대 △미국산 초이스 LA식꽃갈비 냉동세트 9만9000원 등이 있다. 고급 선물세트로는 ‘농협안심한우 저탄소 1++ No.9등급 프리미엄 세트’를 30% 할인한 62만원대에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명산지 과일 등 고품질 선물세트를 확대하고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다. △‘GAP 사과 세트’와 ‘GAP 배 세트’ 각각 6만4000원대, 8만4000원대 △GAP 사과·배 혼합세트 6만9000원대에 마련했다. 유명산지 선물세트로는 ‘진장 사과·안성 배 세트’를 8만9000원대에 판매한다.

수산 선물세트 역시 가성비 선물세트 품목·물량을 확대하고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상품은 1+1 행사를 통해 부담을 덜었다. △CJ 비비고 토종김 5호 △동원 들기름김 세트 등은 각 9000원대에 10+1 혜택을 제공한다. ‘실속 참굴비나눔세트’와 ‘명품 제주갈치세트’는 1+1으로 선보인다.

주류 선물세트 역시 구색을 더욱 강화했다. 와인의 경우 △1865 프렐루전(750ml, 1본입) 19만9000원대 △양드레

글루에 상파뉴 실버 브뤼+브뤼 그랑 리저브(750ml, 2본입) 11만9000원대 △와일드터키 8년(700ml)’는 4만8000원대에 준비했다.

또 명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실용성이 좋은 선물세트는 가격을 동결했다. 대표적으로 △CJ 비비고 토종김 5호(9900원) △동원 들기름김 세트(9000원대) △실속견과3종 세트(1만9000원대) △CJ 스파복합 1호, 5호(3만3000원대) 등 품목의 가격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사전예약 기간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구매 금액대별 최대 600만원 상품권 또는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프리미엄 과일을 비롯해 고품질 한우, 굴비, 특산물 등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실속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390여개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카드로 사전예약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0만원 이상 결제 시 금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도 13일부터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시대 수요가 높은 가성비 상품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상품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전남중기청, 남도장터 우수제품 특별할인전

내일까지 나주 한전본사서 수익금 일부 나눔행사 진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2024 12월 동행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남도장터 우수제품 특별할인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남도장터 우수제품 특별할인전은 11~1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주시 소재 한전전력 본사에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할인전은 전남을 대표하는 남도장터 입점업체 20개사가 참여해 나주 배 과일칩, 장성 사과, 영암 황토고구마, 완도 전복, 신안 꾸지뽕 등 전남의 우수 특산품을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고급 무릎담요’를 증정하고, 현장 방문 고객에게는 ‘장바구니와 핫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동행축제 특별 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11~12일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오프

라인 행사장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행사장 방문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동행축제 특별 기획전’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특별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는 남도장터 홈페이지(jnmall.kr) 메인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할인전 수익금 일부는 다문화가정에게 전달하는 온기(溫氣) 나눔행사도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남도장터와 함께 동행축제를 맞아 우리지역 우수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며 “연말연시에 지역 특산품으로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나주시민, 전국 소비자들께서 만족할만한 제품들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로 통해 남도장터의 입점업체들이 더욱 힘을 얻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상의·경총, 내년 1월3일 신년인사회 공동개최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전남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내년 1월 3일 오전 공동으로 개최한다.

광주상의는 양 기관이 2025년 신년인사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주중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초청대상자들에게 재안내할 예정이다.

애초 광주경총은 내년 1월3일, 광주상의는 내년 1월6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으나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은행권 최초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SK이노베이션 E&S와 계약 체결 탄소중립 실천...친환경 경영 강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SK이노베이션 E&S와 전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이하PPA)’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내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금번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SK이노베이션 E&S의

PPA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등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RE100 목표를 2035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체결해 기후 위기 주원인인 석탄금융 축소와 기후 금융 확산 환경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함에 따라 ‘탄소포인트 기부은행’으로 역할과 책임을 맡아 광주시민들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탄소포인트만큼

후원금을 전달함으로써 광주 도심 내 ‘탄소포인트 숲’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 캠페인에 광주은행 노사가 동참해 업무용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100%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사회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E&S 추형욱 사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사가 ESG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기아·광주신세계, ‘한마음 사랑의 기부’ 행사

서구 장애인 보호시설 후원

“기아와 신세계백화점이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아는 10일 광주신세계와 연말을 맞이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 서구청에서 두 기업이 함께 마련한 ‘한마음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와 광주신세계는 올 한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두 기업이 함께 기부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합의하고 기아 신차를 신세계백화점에 전시하고 발생하는 대관료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기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1개월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 올해 출시한 ‘더 뉴 스포티지, 더 뉴 K8, EV3’를 전시했다.

특히 ‘더 뉴 스포티지’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광주 대표 차종으로 지난달 5일 출시된 이후 광주지역 최초로

광주신세계백화점에 전시해 고객들에게 그 모습을 선보였다.

한달간 진행된 차량 전시를 통해 대관료 1000만원이 마련됐으며, 기아와 광주신세계는 이날 서구청에서 김이강 서구청장, 정길수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을 통해 서구청은 백미 10kg 434포를 구매해 서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4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낸 기부금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